

일상의 학문, 가족자원경영학의 연구경향과 미래*

The research trend and direction of the future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정영금**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Catholic Univ.
Professor Jeong, Youngkeum

〈목 차〉

- | | |
|-------------------------|--|
| I. 서론 | III. 학술지 분석을 통한
가족자원경영학의 연구 경향 |
| II.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의
발전과정 | IV. 연구트렌드를 통해 본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
참고문헌 |

〈Abstract〉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KFRMA) celebrated its 20th anniversary in 2016. KFRMA has tried to improve the quality of family life through research and education since it was formed in 199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ow the contributions of this association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showed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rough themes of 40 symposiums and it analyzed the research trends among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FRMA. Based on this evaluation, this study suggested an expansion of the research area, the identification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relating to family policies or healthy family services. Support for leading research projects and the training of healthy family specialists are needed in this association for next 20 years.

Key Words : 가족자원경영학(Family Resource Management),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연구 경향(research trend)

* 본 논문은 2016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의 발표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한 것임

본 논문은 201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교신저자: 정영금(jeongyk@catholic.ac.kr)

I. 서론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IMF라는 암초에 걸려 넘어진 1997년부터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며 이에 따라 가족의 모습이나 가치관도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는 그간의 생활과학의 발전 및 가족자원경영학의 중요성을 토대로 1996년에 창립된다(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www.kfma.kr). 학회가 새로 만들어질 당시에도 끊임없이 전문적인 진로나 학과분리 등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학문의 정체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확신으로 학회를 설립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사회변화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랐다. 경제적으로 성장도 했지만 그 과정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도 빠르게 드러났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났다.

가족의 형태만 보더라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6)에 의하면, 2015년에 1인가구 비율이 전체의 27.2%를 차지함으로써 1인가구가 이미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유형이 되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주된 가구였던 4인가구는 2010년에 2인가구를 거쳐 1인가구가 가장 많아졌다. 1995년과 비교하자면 12.7%에 불과하던 1인가구는 두 배를 훨씬 넘었고 2인가구 비율 역시 1995년에 비해 10%나 증가한 26.1%를 차지하여, 1-2인가구를 합하면 53%를 넘는다. 이로써 평균가구원수는 2015년 현재 2.53명이 되어 1995년 3.4명보다 거의 1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가구주 중위연령도 50세를 넘겼고 여성가구주비율도 29.6%에 달하여 가구주의 고령화, 여성화 현상을 볼 수 있다.

가족자원경영학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데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를 다루고 자원을 증대시킬

방안을 찾는 가족자원경영학은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상의 변화에 대처해야만 했다. 가정은 생산과 재생산이 맞물리는 장으로서, 반복적인 일상을 통해 가정생활이 유지되고 향상되므로 단순한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통해 생산과 재생산이 반복되고, 이런 점에서 가정을 연구하는 가족자원경영학은 일상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는 지금까지 20년간 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하여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도울 수 있는 전공자의 진로를 개척하고 변화를 꾀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자원경영학 연구를 이끌어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의 20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봄으로써 학문연구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미래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학회의 대표적인 활동인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학문과 학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주제를 통해 일상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미래의 연구를 위해 제언한다.

II.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의 발전과정

가족자원경영학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데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때, 가정이라 함은 개인가정(private family)과 공공가정(großhaushalt) (이기영, 문숙재와 송혜립, 1996)을 포함하며, 자원은 인적자원과 비인적자원(임정빈 외, 2002)을 포함한다. 특히 가정학은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

서 기초적이고 포괄적이며 우리의 삶과 직결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의류학, 식품영양학과 함께 생활과학의 주축이었던 가정관리학은 199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약 30여개의 대학에 학과가 설치될 정도로 발전하였으나(이기영 외, 1993을 이승미, 2007에서 재인용), 1990년대부터 대학의 개방화와 자율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공자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통합된 학문으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가족학이나 소비자학 등이 분리되어 나가면서, 가족자원경영학은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자리잡고자 하였으며, 그 자체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가족자원관리학은 연구자들이나 연구논문들이 많았지만 연구결과를 활용하거나 전공자의 진출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협의의 가정관리학과의 구분이 모호한 채 고유의 영역이 형성되지 않고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진출분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학의 목표이기도 하면서 실천적인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1996년 11월 9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가 설립되어 가족자원경영학을 대표하는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공공가정사와 가정복지사를 전공학생의 사회적 진출분야로 보고 이 분야의 사회적 수요에 따르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가족관계학회지, 가족과 문화가 1996년 창간되었고 뒤이어 1998년에 영유아보육학회지 등이 창간되면서 본격적으로 세부전공이 분화되었다(정영금, 2007).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는 가족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상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개별가정이나 공공가정의 경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계몽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학회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자원경영 분야의 연구발표회 및 학술연구활동
- 학회지, 회보, 연구서적 간행
- 국내외 학회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조
- 특정과제 수행이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Workshop 개최
- 관련분야의 업무에 요구되는 자격증 인증
- 사회봉사 및 계몽활동

학술대회는 1997년부터 년 2회 개최되었으며, 학회지는 1997년 창간호가 1회 발간된 이후 2004년까지 년 2회(1997년 창간호, 2004년 3회), 200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년 4회씩 발간되고 있다. 다음의 <표 1>과 <표 2>는 학회의 대표적 활동과 사회기여를 위한 노력을 시기별로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건강가정사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또 이를 위해 학회가 학술대회를 통해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보여준다.

학회가 설립되던 시대에는 여성의 시장노동참여가 증가하고 3차산업이 성숙되면서 모든 학문이 사회적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이어서 본 학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공공가정, 재택근무, 생활과학과 IT산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던 중에 발생한 IMF경제위기는 가정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가족문제가 심화되면서 학회의 관심은 건강가정사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의 학술대회는 거의 건강가정사업만을 주제로 삼았고, 결국 2005년부터 건강가정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숙련된 인력활용을 위한 국가 및 기업의 필요성은 일-가정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어 2000년대 후반에는 일-가정의 문제에 학회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와 더불어 생겨난 저출산고령화문제로 인해 돌봄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였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노인 및 베이비부머에 대한 주제도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2차에

〈표 1〉 시기별 학회의 대표적 활동과 학술대회주제

시기	-1997-	2000-	2005-	2010-	2015-
학술대회 및 학술지	학회 설립 창간호 학술대회 2회	년 2회 개최 년 2회 발행	년 2회 개최 년 4회 발행	년 2회 개최(공동) 년 4회 발행	2016 20주년
전공	전공으로서의 가족자원경영		(학과변화에 대한 연구'07)		
방향		방향성모색, 건강가정사업준비	건강가정기본법시행	건강가정지원센터정착	
정책		건강가정사업 준비	1차 건강가정정책(06-10) '05-건강가정지원센터 16개	2차 건강가정정책(11-15) '10-건강가정지원센터 137개	3차 건강가정정책(16-20) 150개(다문화가족지원 센터 214개)
학술대 회주제	공공가정 재택근무	가족기업 IT, 시테크 건강가정	건강가정 건강가정 일-가정	노년기, 베이비붐 사회자본,가족친화 행복	100세 위기 일상

〈표 2〉 학술대회 주제 키워드

연도/ 주제	시도	노인	기술변화	관리일반	건강가정	다양가정
1997	공공가정, 공공가정					
1998	재택근무					
1999		노인, 예절				
2000			가족기업,	관리교육		
2001			IT정보, IT산업			
2002			시테크, 주5근무			
2003				관리전략	건강가정	
2004					건강가정, 건강가정	
2005				생활문화	건강가정	
2006		노인/지역			건강가정	
2007					일-가정	
2008					일-가정	
2009			녹색성장			다문화
2010		노후			가족친화	
2011		사회자본, 베이비부머				
2012		전환기				한부모
2013						사회통합, 국민행복
2014					건강가정, 일-삶	
2015		100세		시간빈곤		
2016						위기, 일상

결친 우리나라의 건강가정정책에 담겨져, 가족자원경영학회의 학술주제 및 연구논문들을 통해 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저출산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2000년대 후반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다양한 가정의 등장 등의 문제들은 2010-2015년까지의 다양한 학술대회주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노인문제, 한부모, 가족의 위기, 그를 극복하기 위한 행복과 통합 등의 주제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하고자 노력하였다.

III. 학술지 분석을 통한 가족자원경영학의 연구 경향

1. 분석방법과 내용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가 발간된 이후로 20년간의 가족자원경영학 연구의 역사와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므로 그 동안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논문주제의 경향분석이므로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경향은 20년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되, 전반기의 연구경향은 이연숙 외(2009)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별하여 비교하였다. 이연숙 외(2009)는 1997-2008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95편을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이후 2009(13권)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논문 293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8년간의 연구이므로 각 4년씩 나누어 2009-2012년까지의 전반기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59편과 2013-2016년까지 후반기의 논문 134편의 연구경향을 비교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1997년-2008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연구경향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연구경향은 주제, 대상, 방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연구경향은 시대에 따라 주제, 대상, 방법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분석을 위한 주제 분류

가족자원경영학 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정영금(2000), 이승미(2007), 이연숙 외(2009)가 있다. 정영금(2000)은 가족자원경영학 분야 연구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관리이론과 관리대상, 관리실제로 대별하여 각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들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현장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이후 가족자원경영학의 사회적 실천분야로 건강가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이승미(2007)는 관리실제 부분을 다시 관리실체와 공통실천 분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연숙 외(2009)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실린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는 관리실체부분을 다시 합하고 관리이론부분을 세분하였으며 관리대상에 일·가정양립을 포함시켰다(표 3참고). 본 연구에서는 앞서 10년간의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이연숙 외(2009)의 분석방법을 기초로 하여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연구 대상의 변화를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큰 연구영역은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영역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또 변화해야 하므로, 연구주제 분류상으로 소분류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추가하였다. 중분류 가치관 부분에서는 저출산현상에 맞추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식과 의향이 많이 다루어진 주제였고, 중분류 자원에서는

〈표 3〉 연구자별 연구영역 분류 비교

정영금(2000)		이승미(2007)		이연숙 외(2009)	
가족자원관리학분야 (대가,한가관,한가자경)		가족자원관리학분야(한가관)		가족자원경영학(한가자경)	
관리이론 (이론)	관리체계/과정 가정생산/가족경제 생활의 질/만족 생활설계/실태	관리이론 (이론)	관리체계/과정 가정생산/가족경제 생활의 질/실태 생활설계/실태	관리이론	가치관 자원 관리체계/관리행동 생활의 질 생활설계
관리대상 (적용)	가사노동 시간자원 가정기기 여가	관리대상 (적용)	가사노동 시간자원 가정기기 여가	관리대상	가사노동 취업노동 일가정양립 생활시간 여가 가계경제/재무
관리실체 (활용)	공공가정 가정복지사 가족기업/재택근무	관리실체 (활용) 공통실천분야	공공가정 가족기업/재택근무 주부관련 가정복지 건강가정	관리실천	건강가정 공공가정 가정복지사 가족기업/재택근무 관리교육
기타		기타		가정의례/풍속	
				기타	
		가정생활문화 교과과정 등		기타(가족자원경영외)	

가족자원과 더불어 인적자원(본), 사회자본, 사회 지지 등의 주제가 많았다. 중분류 관리체계 및 가정관리행동에서는 다문화가정 연구 증가로 인해 기존주제 외에 가정생활적응(문화적 적응, 생활적응, 가정생활경험, 생활문화적응 등 용어 다양)이 대표적인 주제로 드러났다.

대분류 관리대상은 2009년 연구에서 일-가정 양립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구경향을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과거에 비해 가사노동이나 취업노동, 생활시간 등이 따로 연구되기 보다는 일-가정 양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 중분류 일-가정 양립에는 일반적이 실태와 관련정책과 제도들이 포함되므로 세분화된 비교가 요구된다. 대분류 관리실천

역시 건강가정에는 다양한 소주제들이 포함되므로 이들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3. 분석결과

1) 1997-2008년까지의 연구(2000년대 연구로 명명)와 2009-2016년까지의 연구(2010년대 연구로 명명)의 비교

가. 주제별

2000년대 연구와 2010년대 연구들의 주제를 대분류상으로 비교해보면, 관리이론이나 관리대상에 대한 연구비중이 다소 높아진 반면에 관리실천영역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 2000년대나

〈표 4〉 연구주제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족 자원 경영	관리 이론	가치관 자원 관리체계 및 가정관리행동 생활의 질 생활설계	가치관 /결혼 및 출산의향 가족자원/인적자원(본), 사회자본, 사회지지 관리체계, 가정관리행동, 의사결정, 의사소통/생활(문화)적응 생활의 질/만족 가정생활설계/노후준비	
	관리 대상	가사노동 취업노동 일·가정양립 생활시간 여가 가계경제, 재무관리	가사노동분담, 가사노동 사회화, 가사노동 가치 및 평가 취업노동, 직무만족/ 경력단절여성 일·가정양립/실태,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마을 가사노동시간, 취업노동시간, 여가시간, 생활시간, 시간만족 활동, 만족, 정책, 태도, 여가전체 소비패턴 및 지출, 재무관리, 재무설계 및 상담, 재정문제, (재정)경제 만족도/자원이전(효과,호혜성), 노후준비	
		관리 실천	건강가정 공공가정/ 가정복지사 가족기업, 재택근무 관리교육	가정의 건전도(건강성),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지원센터관련, 센터관련프로그램/가족정책, 자원봉사 공공가정관련 이론, 공공가정관리사/가정복지사 가족기업, 재택근무, 여성기업 중·고·대학생교육, 성인교육, 가정교육/환경교육, 통일대비
			기타	가정의례·풍속 기타
기타		소비자 아동·가족학 주거학	소비자문제, 만족불만족, 소비자교육, 소비자 상담 등 아동학, 가족학 주거학	

* 소분류의 주제는 이연숙 외(2009)의 소분류 주제/2009년 연구부터 추가되거나 강화된 주제로 재구성함.

2010년대나 여전히 관리대상에 대한 연구가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각각 35.3%와 39%로서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문 영역임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는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관리실천분야야 비중이 관리대상분야의 비중보다 높았는데, 2010년대에는 관리대상분야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율상으로만 본다면 대분류상 관리실천분야의 연구비중이 감소하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자체로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중분류상으로 건강가정분야에만 연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분류별로 비교해보면, 관리이론영역에서는 2000년대 연구에 비해서 2010년대에는 자원이나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가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자원이 가족 내 자원을 관리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자원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며, 다양한 가정의 일반적인 생활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베이비부머나 은퇴자들의 인적자원, 사회봉사를 포함한 사

회적자본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졌고, 자녀세대나 기타 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치관, 생활의 질 등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이론 영역에서는 여러 주제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리대상 중분류상으로 분석해보면, 200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연구가 더욱 급증하여 2010년대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논문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사노동이나 취업노동에 대한 연구들과 중복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가사노동의 분담이나 역할과중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분담과 지원에 대한 연구로서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연구, 일-가정-여가를 연계한 연구들이 많아졌다. 가계경제영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2010년 연구에서 소비자영역을 가능한 한 가계관리영역으로 분류한 것을 감안한다면, 논문수가 많이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영역에서는 단순한 소비지출이나 재무관리보다는 자녀세대와의 자원이전, 노후준비로서의 재무설계와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졌다.

마지막으로 관리실천부분에서는 2003-2008년에 급증했던 건강가정에 대한 논문들이 2010년대에도 여전히 많아서, 가족자원관리학의 관심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대에는 대분류 상에서 관리실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지만 건강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하여 건강가정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되었다. 단지 공공가정이나 가족기업 등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집중되었던 연구들은 최근에 급격히 감소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방법별

2000년대 연구와 2010년대 연구들이 사용한 연

구방법들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논문들이 경험적 방법을 통해 연구하는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에는 경험적 연구가 더욱 증가하여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이론연구가 감소하여 전체의 11%를 차지하였다. 경험적 연구들을 다시 세부분류별로 비교하면, 설문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던 2000년대의 연구방법에 비해서 2010년대에는 2차자료와 면접 및 사례를 통한 연구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험적 연구방법에서는 설문조사, 2차자료, 면접/사례조사가 골고루 사용되었다. 2000년대 연구경향을 분석한 이연숙 외 연구(2009)에서, 앞으로는 가족자원경영학 연구들이 설문조사에 집중되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하였는데, 2010년대에는 2차 자료활용이나 기타 면접 조사, 설문조사와 면접을 혼합하는 방법 등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개발논문은 감소하였다.

다. 대상별

2000년대 연구와 2010년대 연구들이 대상으로 한 가정을 비교해보면,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연구가 85%에 달하던 2000년대의 연구와 달리, 2010년대에는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연구가 감소하여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즉 2010년대에는 전통적인 가정과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정에 대한 연구가 비슷한 비중으로 연구되었다.

2) 2009-2012년까지의 연구(2010년 전반기 연구로 명명)와 2013-2016년까지의 연구(2010년 후반기 연구로 명명)의 비교

가. 주제별

관리이론에 대한 연구는 전체 293편 중 79편으로 26.9%를 차지하였으며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다소 많이 연구되었다. 중분류상으로는 관리행동

이나 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가 다소 많았으며 가
치관이나 가족자원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
졌다. 단지 관리체계나 행동부분의 연구가 후반기
에 다소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생활의 질
이나 의식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다. 자원영역
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자원보다는 사회적자원이나
사회자본, 사회지지 등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후반기의 연구편수가 증가하였다.

관리대상에 대한 연구는 2010년대에 총 116편
이 발표되어 전체 293편 중 39.6%를 차지하였다.
중분류상으로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연구와 가
계경제/재무관리 분야의 연구가 많았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연구트렌드가 반영되
어 전반기와 후반기에 고르게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이나 취업노동, 생활시간 연구는 감
소하였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연구와 주제가 중
복되거나 통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지 여가연
구는 후반기에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가에 대한
최근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는 일-가정-여가
를 모두 포함하는 일-생활연구보다는 일-가정 균
형연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계경제
/재무관리 연구는 2010년대는 전체적으로는 많았
지만 후반기에 대폭 감소하였다.

관리실천에 대한 연구는 총 46편이 발표되어
전체의 15.7%를 차지하였다. 관리실천 내에서는
건강가정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건강
가정에 대한 연구는 전후반기에 걸쳐 고르게 많
이 연구되었다. 이에 비해 공공가정, 가정복지사,
가족기업 분야는 1편에 불과하여 최근에 연구가
심히 부진함을 알 수 있다. 공공가정사나 가정복
지사에 대한 진로가 불투명하여 관련연구가 적다
면, 이 분야들을 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연구경향을 보기 위한 분류상의 통
합일 뿐 연구영역을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교육분야 역시 연구가 많지는 않았는
데, 이것은 가정생활교육 관련연구의 일부분이 건

강가정프로그램과 연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방법별

연구방법별로 연구의 경향을 보면, 전체 293편
의 연구 중 경험적 연구가 254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86.7%를 차지하였다. 경험연구 중에는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105편으로 가장 많았
으며, 2010 전반기에 32편, 후반기에 50편으로 점
차 증가하였다. 면접/사례를 이용한 연구도 각각
32편과 26편으로 상당히 증가하여 연구방법이 다
양화됨을 알 수 있다.

문헌연구는 총 32편으로 전체의 10.9%를 차지
하였으며, 후반기에는 더 감소하였다. 또한 실천
프로그램을 제안한 연구는 7편에 불과하여 2.4%
였다. 프로그램연구가 적은 것은 2008년까지의
연구에 비해 프로그램의 구성자체보다는 프로그
램의 평가나 성과 등을 검토한 연구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문헌연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 즉 프로그램 개발 자체보다는 기존 프로그래
들을 비교하여 새로운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대상별

연구대상별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전통적 가
정에 대한 연구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여 가
장 많았고, 전후반기에 비슷한 비중으로 연구되었
다. 전통가정 중에도 연구대상별로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다소의 연구증감현상이 보이기는 하
지만, 대체로 취업과 비취업, 기혼과 미혼을 통틀
어 가정의 모습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자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단지 맞벌이가정이나 남편에 대한
연구가 후반기에 다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다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문
화가정과 노인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한 연구가 많
았다. 특히 후반기에는 다문화가정보다는 한부모
가정과 노인가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연
숙 외(2009)에서 2000년대 연구에서는 전형적이

고 일반적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고 노인가정 외에는 다양한 가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노인가정에 대한 연구

들은 취약한 가정으로서의 노인가정을 연구하였으나 최근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가정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표 5〉 연구주제별 논문게재편수

	대분류	중분류	'97~'02	'03~'08	총계(n,(%))	'09~'12	'13~'16	총계(n(%))
가족 자원 경영	관리 이론	가치관	7	2	9 (3.1)	5	9	14 (4.8)
		자원	1	2	3 (1.0)	3	7	10 (3.4)
		관리체계 및 가정관리행동	9	5	14 (4.7)	12	7	19 (6.5)
		생활의 질	14	10	24 (8.1)	9	20	29 (9.9)
		생활설계	1	4	5 (1.7)	4	3	7 (2.4)
		계	32	23	55 (18.6)	33	46	79 (26.9)
	관리 대상	가사노동	7	5	12 (4.1)	6	4	10 (3.4)
		취업노동	3	4	7 (2.4)	2	5	7 (2.4)
		일·가정양립	1	9	10 (3.4)	18	18	36 (12.3)
		생활시간	2	11	13 (4.4)	10	7	17 (5.8)
		여가	7	12	19 (6.4)	2	9	11 (3.8)
		가계경제, 재무관리	29	14	43 (14.6)	24	11	35 (12.0)
		계	49	55	104 (35.3)	62	54	116 (39.6)
	관리 실천	건강가정	2	28	30 (10.2)	22	19	41 (14.0)
		공공가정	6	2	8 (2.7)	1	0	1 (0.3)
		가정복지사	0	1	1 (0.3)	0	0	0 (0.0)
		가족기업, 재택근무	9	4	13 (4.4)	0	0	0 (0.0)
		관리교육	3	8	11 (3.7)	3	1	4 (1.4)
		계	20	43	63 (21.4)	26	20	46 (15.7)
	기타	가정의례·풍속	6	7	13 (4.4)	8	2	10 (3.4)
기타		5	8	13 (4.4)	21	7	28 (9.6)	
계		11	15	26 (8.8)	29	9	38 (13.0)	
	소계	112	136	248 (84.1)	150	129	279 (95.2)	
기타	소비자	8	29	37 (12.5)	3	0	3 (1.0)	
	아동·가족학	0	5	5 (1.7)	4	4	8 (2.7)	
	주거학	1	4	5 (1.7)	2	1	3 (1.0)	
	소계	9	38	47 (15.9)	9	5	14 (4.8)	
	총계	121	174	295 (100)	159	134	293 (100.0)	

〈표 6〉 연구방법별 논문게재편수

분류		‘97~’02	‘03~’08	총계	‘09~’12	‘13~’16	총계
이론	문헌연구	29	37	66 (22.4)	21	11	32 (10.9)
	2차 자료	9	21	30 (10.2)	32	50	82 (28.0)
경험	설문조사	77	81	158 (53.6)	63	42	105 (35.8)
	설문+면접	3	7	10 (3.4)	3	1	4 (1.4)
	면접·사례	2	12	14 (4.7)	32	26	58 (19.8)
	기타(실험 등)	0	1	1 (0.3)	4	1	5 (1.7)
	계	91	122	213 (72.2)	134	120	254 (86.7)
실천	프로그램	1	15	16 (5.4)	4	3	7 (2.4)
총계		121	174	295 (100.0)	159	134	293 (100.0)

〈표 7〉 연구대상별 논문게재편수

분 류			‘97~’02	‘03~’08	총계	‘09~’12	‘13~’16	총계	
일반 가정	기혼	취업	7	5	12 (5.6)	7	11	18 (7.1)	
		부인 미취업	2	6	8 (3.8)	4	1	5 (2.0)	
		취+미취	31	13	44 (20.7)	13	16	29 (11.4)	
			남편	1	2	3 (1.4)	3	7	10 (3.9)
	+미혼	부인	3	3	6 (2.8)	1	7	8 (3.1)	
		+남편 취+미취	17	15	32 (15.0)	16	10	26 (10.2)	
	+미혼	여	-	4	4 (1.9)	4	1	5 (2.0)	
		남	-	3	3 (1.4)	0	0	0 (0.0)	
		남+여	10	32	42 (19.7)	11	11	22 (8.7)	
			대학생	3	10	13 (6.1)	10	6	16 (6.3)
			청소년	2	4	6 (2.8)	5	7	12 (4.7)
			아동	-	1	1 (0.5)	0	0	0 (0.0)
+자녀	부모	-	1	1 (0.5)	0	1	1 (0.4)		
	+자녀 부모+자녀	3	2	5 (2.3)	1	1	2 (0.8)		
소계		79	101	180 (84.5)	75	79	154 (60.6)		
다양한 가정	한부모		-	2	2 (0.9)	1	8	9 (3.5)	
	저소득층		-	-	-	1	0	1 (0.4)	
	다문화		-	2	2 (0.9)	19	6	25 (9.8)	
	노인		8	10	18 (8.5)	20	20	40 (15.7)	
	농촌		2	1	3 (1.4)	0	0	0 (0.0)	
	중국동포		1	-	1 (0.5)	0	0	0 (0.0)	
	북한이탈가족		1	-	1 (0.5)	0	0	0 (0.0)	
	한국이민자		-	1	1 (0.5)	0	2	2 (0.8)	
장애인		-	1	1 (0.5)	0	0	0 (0.0)		
소계		12	17	29 (13.6)	41	59	77 (30.3)		
기타		-	4	4 (1.9)	18	5	23 (9.1)		
총계		91	122	213 (100.0)	134	120	254 (100)		

* 총계는 이연숙 외 연구(2009)의 분석(분석 논문 중 대상선정이 곤란한 문헌연구와 프로그램 논문을 총계에서 제외)과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총 분석논문수와 차이가 있음.

**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연구의 조선족과 탈북인은 최근용어인 중국동포와 북한이탈가족으로 각각 수정함.

IV. 연구트렌드를 통해 본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

1. 연구영역의 변화와 확대

최근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으로서는 각종 자원 간의 사용과 배분을 통한 일-가정 균형 및 건강가정사업 관련분야를 들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연구수가 많을 뿐 아니라 연구들의 성격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일-가정의 균형은 실제 가족원의 일-가정 균형실태 외에 기업의 일-가정 균형제도에 대한 실태, 가족친화제도와 정책 제안, 그것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 가족친화마을 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건강가정분야 역시 가정의 건강도 외에 건강가정사업이나 프로그램 실태, 그것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센터사업 평가, 종사자 관련 연구, 이를 통한 정책제안, 자원봉사 등 더욱 더 범위가 넓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분류 상으로 구분된 이론, 대상, 실천 외에 가족정책분야를 새로 만들 것을 제안해본다. 연구영역을 구분하고 수량화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새로워진 학문경향을 인지하고 반영함과 동시에, 가족자원경영학 연구의 사회적 기여의 결과물들이 정책으로 환류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알리는 것이다.

2. 가족자원경영학과 건강가정사업의 교집합과 학회의 역할

건강가정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분야의 연구 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수행과 종사자 관리 등 많은 과제들이 생겨났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초기에는 가정학특위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인력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의 주요 연구자들이 담당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직도 여전히 책임을 맡고 있다. 건가사업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가족자원경영학 전공자에 의해 채워졌고 관련 논문도 본 학회지에 가장 많이 게재되다보니 가족자원경영학과 건강가정사업의 교집합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가정 종사자들을 끌어안으면서 건강가정사업과 가족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학회도 없는 터라 자연스럽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를 가족정책학회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간간히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사업은 가정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영역으로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와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시행 초기에는 관련학문과 학회들이 서로 차별성이 없이 연구를 확장시켜 나갔다. 그러다보니 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역시 사업 및 센터 운영이나 사업내용, 프로그램개발, 정책, 평가 등 모든 분야의 연구를 포괄하게 되었다. 가족자원경영학만의 독자적인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며 가족자원경영학회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어주어야 할 건강가정 사업영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박정운·이선형, 2014)도 이 때문이다.

가족자원경영학은 사업의 세부내용을 채우기 보다는 정책이나 사업의 체계를 만드는 데 적합하므로, 실질적으로 건강가정사업 전체를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학문과 학회의 정체성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자원경영학이란 과거 가정관리학에서 가족학, 아동학 등이 분리되어 나가면서 동일한 차원에서 생긴 독자적인 학문영역이며 이를 대변하고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가 설립된 것인가, 혹은 그러한 과정에서 생겨나기는 했지만 가정관리학 혹은 가정관리학과가 없어진 지금, 독자적인 학문영역 외에 가정학과 가정관리학의 계보를 잇는 뿌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본 학문과 학회는 후자의 관점을 가졌기에 법 제정에서부터 사업확장까지 건가사업을 이끌어왔고, 협의의 자원관리를 넘어 전체 사업과 종사자

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는 규모가 작은 전문학회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시각과 범위는 크게 하여 새로운 방향을 적극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3. 연구 활성화

개인적인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가 건강가정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자 한다면 학회차원에서 따른 연구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가족실태조사나 정책 수립 등에 가정학 전문가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면 학회를 통해 가족정책을 논의하고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단지 연구로만 그칠 뿐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결국 건강가정이나 사업의 방향이 변질될 수 있다.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다양한 조사와 정책평가, 사례 조사와 분석을 기획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연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및 전문성 강화는 우리 전공자들의 미래인 동시에 학문의 방향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전략적인 논의가 미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회차원에서는 정책입안자들과의 관계유지와 더불어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연구나 모임을 통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가족포럼의 초기형태와 같은 소규모 연구모임이나 교재, 총서 구상, 개별적 연구보다는 학회 기획 하에 통합된 연구, 학술대회를 미리 구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등을 시도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일인가정이나 베이비부머 등의 등장과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학술대회주제로도 다루어졌지만, 각자의 시각에서 기존 연구들을 모아놓았을 뿐 의외로 통합적 시각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일인가정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상황과 형태를 보일 것이므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연구를 시도해 볼 만하다.

4. 정책과 연계한 연구주제 모색

앞에서 언급한 연구활성화의 문제를 가족관련 정책과제와 연결시켜보면, 앞으로 우리의 연구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정책에서는 가족행복플랜(3차 정책)을 통해 2020년에 가족 안정화, 출산친화적 환경, 일-가정 양립 정착, 가족의 다양성 존중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정책에서는 브릿지2020(3차 정책)을 통해 2020년에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노인빈곤을 완화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인구통계학적으로 가구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과정에서 여성의 취업률은 증가하고 아동은 행복해야 하고 노인은 생산적으로 경제성장에 토대가 되려면 다양한 여성 직종에 대한 연구, 세대를 달리한 일-삶의 균형, 아동과 노인의 돌봄 및 가족 간의 연계망으로서의 지역사회환경 등이 남아있는 과제일 것이다.

5. 전공자의 미래와 건강가정사의 전문성

건강가정사업의 정착을 통해 건강가정사가 우리 학문의 대표적인 진출분야로 자리잡았지만 우리 학문만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며 또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 타학문의 경우에 유망직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자격증화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업무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가족자원경영학회의 인적자원이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변화된 형태의 공공가정관리사를 하나의 대안으로 그려본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앞으로 교육이나 상담, 가족문화 등 가족정책영역별로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계획하는데, 우리 분야에서는 가족친화문화나 가족친화마을조성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적합할 듯하다.

지금까지 학회차원에서 관리해 온 공공가정관리사가 보육시설이나 시설가정의 운영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범위를 조금 넓혀 개별공공가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일인가정이나 노인가정의 증가로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벗어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가족형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세어하우스나 코하우징, 노인홈, 공동주거, 협동주거 등이 상당부분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나 공동체주택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으로 의료안심주택이나 여성안심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활용하고자 주거학 영역에서도 주거복지사가 생겨나고 마을만들기에 주력하며 공동체규약들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공동생활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공공가정경영의 개념이 더해진다면 개인 및 개별가정의 욕구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확대를 선언하였는데, 도시 재건 및 활성화에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함께 공존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가족문화사업과도 일맥상통한다. 공동육아 및 가족품앗이, 가족봉사 등으로 대표되는 가족문화사업은 현재 어린 자녀의 육아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문화사업은 일상적인 육아를 넘어서 노인 돌봄이나 일시적인 돌봄, 상호돌봄, 문화품앗이,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하는 활동과 봉사, 커뮤니티활동 등 지역사회를 가족친화적으로 만들어가는 중심활동이 될 수 있다.

가족자원경영학분야는 현재 가족학, 소비자학, 주거학, 사회복지학 등 복지 및 교육분야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고령화되어가는 사회구성원들의 돌봄과 의료, 복지, 치유, 여가 및 문화활동에 기여하도록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반응하고 이끌어가는 역할도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에서 인증하는 공공가정사는 혈연 이외의 다양한 사람이나 가정이 모여 사는 시설로서의 공공가정의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문화사업의 운영, 가족친화

마을조성사업의 운영, 이를 확대한 지역사회 각종 커뮤니티의 운영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명칭검토나 교육과정 개편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우선적으로는 공공가정경영, 비영리기관운영 등의 과목개설을 위한 학회차원의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대학 환경 역시 세부전공이나 트랙을 통한 융합전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추세이므로, 가족자원경영학의 통합적 성격을 활용한 선제적인 논의를 통해 전공자들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로써 넓은 의미의 공공가정사가 공공가정 코디네이터,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코하우징 매니저, 가족친화마을기획자, 라이프스타일 기획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1) 박정윤·이선행(2014). 건강가정 관련 연구의 동향과 과제-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실린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4), 53-68.
- 2) 이기영·문숙재·송혜림 공역(1996). 공공가정경영론. 서울 : 학지사.
- 3) 이승미(2007). 가족자원관리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립30주년기념 특별호, 83-104.
- 4) 이연숙·한지수·한영선·김하늬(2009).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의 경향 및 발전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207-226.
- 5)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2002). 가정관리학. 서울 : 신정
- 6) 정영금(2000). 가족자원관리학 분야 연구의 사회적 기여와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231-241.
- 7) 정영금(2007). 가정관리학 분야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립30주년기념 특별호,
27-39.

- 8) 통계청(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 9)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www.kfma.kr

- 투 고 일 : 2017년 5월 31일
- 심 사 일 : 2017년 7월 4일
- 게재 확정일 : 2017년 7월 20일